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8호 【루계 제24471호】 주체103(2014)년 2월 27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최후승리를 위한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자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폐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40년전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때처럼 크나큰 격정과 환희, 감격과 기쁨으로 온 대회장이 세차게 끓어번졌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웨치며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적영광과 자부심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이다.

전국의 당사상일군들이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고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전당이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영웅적진군에로 총궐기, 총발동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순간도 멈춤없이 맹렬하게 들이댐으로써 온 나라가 앙양된 전투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적혁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다.

지금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의 사상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 사업에서 기수는 사상일군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예지와 선견지명,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들과 고전적로작들은 그 어느것이나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확고한 의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상리론들에서 희망찬 미래를 락관하고있으며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가 백방으로 강화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들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미래를 밝힌 전략적대강이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명시한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고 무한대한 견인력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선언이다.

우리 혁명력사는 위대한 사상으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은 언제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밝혀준 등대였고 단결의 기치였으며 투쟁의 보검이고 전진의 힘있는 추동력이였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드는 사업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도 사상사업의 성과여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여기에는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는 혁명승리의 철리가 맥박치고있다.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사상을 유일한 무기, 최강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우리는 지금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살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다그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웅적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1970년대처럼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1970년대와 같이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연설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그 하나하나가 오늘의 사상사업발전의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의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그처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우리 당사상일군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표시이고 뜨거운 고무격려이다.

백전백승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력사와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선군조선의 자랑찬 행로에는 우리 당사상진지를 철벽으로 지켜온 사상일군들의 위훈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드세찬 사상전,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핀 사상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졌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 고상한 풍모를 지닌 사상일군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혁명의 나팔수, 시대의 선도자로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헌신분투하여온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사상일군들, 전국의 초급선전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이 구호에는 당사상일군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인 동지적믿음이 깃들어있다. 우리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인 사상일군들은 꺼지지 않는 홰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여야 한다고, 사상일군들은 한 사람한사람이 다 원쑤들이 한개 사단이나 군단무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자애로운 어버이, 친근한 스승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이고 활동원칙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며 그 어떤 힘으로도 백두산대국의 사상적요새를 흔들수 없다.

지금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어깨우에는 참으로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임무가 지워져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전렬에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서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상공세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을 일시에 들었다놓을수 있는 막강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있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여있어도 무적의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량이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있을수 없다.

우리 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견결한 혁명정신을 지닌 참되고 준비된 사상일군들을 부르고있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연설에 제시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독창성과 심오성,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우리 당사상건설의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보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이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따져가며 깊이 있게 학습하여 그 기본정신과 내용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체적당건설력사와 결부시켜 연설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을 폭넓고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연설에 대한 학습과정이 당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수》가 허용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첫째가는 과업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의 기둥이 되고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오늘의 사상공세의 목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한 동지, 전우로 만드는것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말이나 문건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심장을 끓이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학습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누구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갈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오늘의 총진군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수놓아지게 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열의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인류의 리상이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운명과 미래는 우리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우리 식 사회주의와 운명도 미래도 같이하려는 결사의 의지를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출판보도, 문학예술부문에서 대적언론전의 도수를 높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생활양식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색적인 풍조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상적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움으로써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밝혀져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어 누구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최첨단돌파전을 맹렬하게 벌려나가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에서의 형식주의와 도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설득력있고 론리정연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백가지 일이 나서면 백가지 방법으로, 천만의 군중이면 천만가지 처방으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정치일군들처럼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야 한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직위와 간판이 아니라 높은 충실성과 실력으로 당을 진심으로 받들며 무한한 헌신성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모든 당사상사업을 살아숨쉬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열백밤을 패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정의 인간,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사람들의 눈빛 하나, 행동거지 하나를 보고도 마음속고충을 간파할줄 알고 그 누구를 만나도 쉽게 친숙해지고 심장의 문을 열줄 아는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대중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야 한다.

사상사업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의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현실에 들어가는것을 체질화하며 모든 사업과정이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상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영광과 번영의 시대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강습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사상사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강습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기본내용이 강조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전선에 불을 지피고 강력한 사상공세로 당과 혁명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당사상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로작의 기본사상은 사상의 포문을 열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사상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이고 유일한 무기인것으로 하여 당사상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로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구호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제시해주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며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것이다.

당사상일군들은 견결한 혁명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되고 준비된 일군이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고 인민관을 바로세워야 한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사상사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언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를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신념으로 체득하며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구현해나가며 이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상사업부문에 주신 말씀과 방침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며 실천투쟁속에서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또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에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가 취급되였다.

당사상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며 끝까지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한한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사상전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 단숨에의 기상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상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과 지시대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강습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우리 당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속에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설계하고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는 근본바탕에도 다름아닌 천만군민의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놓여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는것은 현시기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선전선동의 위력한 포성으로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천만대중을 일심단결의 정신,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완벽하게 체현한 **김정은**시대의 정신적강자로 만드는것이 오늘의 사상전의 핵이며 선차적임무이다.

당정책선전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총궐기, 총발동시켜야 한다.

당면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사상사업을 철저히 화선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강성국가건설속도를 창조한 인민군대 정치일군들의 사업방법과 경험을 당사상사업에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주도세밀하게 작전하며 완벽하게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하여온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와 더불어 주체적인 당사상사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정치활동가가 되여 사상전, 선전선동의 위력한 포성으로 천만대중을 산악같이 일떠세워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당사상사업의 지침으로 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학습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뢰성친 결사옹위의 노래, 통일단결의 노래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대하여

우리 조국력사에 또 하나의 사변적의의를 아로새기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정신, 감정과 정서의 선도자들인 당사상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지금 한편의 노래가 혁명의 뢰성마냥 장엄하게 울려퍼지고있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드세찬 사상전, 적극적인 선전선동으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전체 당사상일군들의 불같은 열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룬 우리 시대의 훌륭한 명곡이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가 펼쳐진 오늘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과감히 짓부시고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억세게 고무추동하는 충정의 선서, 투쟁의 진격나팔소리와도 같다.

태양조선의 선언

위인송가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수 있어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와 같이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합창하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는 있어본적도 있을수도 없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부르는 우리의 귀전에는 근 60년전에 태여난 가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가슴뜨거운 추억을 일으키며 울려퍼진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장엄한 사회력사적변혁이 일어나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며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높이 불렀다. 《백두의 밀림에서 밝아온 이 아침》이라는 노래의 첫 구절처럼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싸워온 항일혁명투사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가장 철저하게, 가장 무자비하게 투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할 정신과 넋이 무엇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참된 전사들이 불러야 할 혁명의 노래가 어떤것인가를 시대와 력사앞에 증명해준 가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조선로동당의 통일단결력사에 거대한 봉우리를 이루었다. 비록 길지 않은 노래였으나 거기에 심어져있는 심오한 혁명의 철리와 시대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하여 1950년대의 우리 당력사를 상징하는 음악기념비와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1990년대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엄혹한 고난의 시기였다.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붕괴라는 대정치지진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종말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원쑤들에게 완전히 포위되다싶이 했던 그때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자기 운명의 태양으로 우러르면서 가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목청껏 불렀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드놀지 않을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고 노래부르며 하나의 대전과도 맞먹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였다. 바로 그 노래와 함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제재와 봉쇄를 과감히 짓부시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할 거대한 정치군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1950년대에 태여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1990년대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에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울려퍼진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와 더불어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이 어떤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와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로운 주체100년대 조선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신분이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펼쳐진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현실과 결실들을 체험하면서, 원수님과 혈연적관계를 맺고 사랑과 정을 나누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고 정의이다. 질은 서정이 아니라 단호하고 직선적이며 명백한 선언으로 충만된 이 노래의 음악세계가 만사람에게 접수될수 있는 정서적바탕과 론리적기초는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줄달음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지나온 나날에 그려보았던 휘황한 래일에 대하여 산 현실로 알게 되였다. 피와 땀,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켜내고 가꾸어온 그것은 더는 래일이 아니라 오늘로 되였으며 꿈만이 아니라 실생활이 되였다. 그리고 지나온 2년간에 이룩한 자랑찬 현실과 같이, 그 비약적속도와 같이 우리 조국과 혁명의 운명은 앞으로 더욱 눈부시게 행복해지며 위대해지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빛, 이 세상 만물에 생을 주고 억세게 키워가는 태양과도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하여 노래는 《이 조선 이끄는 힘 억세다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꿈과 리상 모두다 꽃펴주실분》이라는 가사의 첫 구절들로 형상하였다. 그것은 가사전반에 걸쳐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주장하게 되는 가장 확고한 근거이기도 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 과학적실천성, 그로부터 산생된 절대적믿음과 의지의 감정을 가요는 《눈부신 그 리상이 우리 목표다 령장의 결심은 인민의 승리》, 《그이가 가리킨 오직 한길로 천만이 폭풍쳐간다》라는 2절의 가사형상에 반영하였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념원하는 리상이지만 그것은 오직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참답게 실현되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자기의 목표와 승리로 확신하는것이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오직 한길로 폭풍쳐달린다고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는것이다.

가요는 또한 조국과 혁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이 내린 선택을 명쾌하게 반영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 노래한 《하늘땅 바뀌대도 역풍분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리》와 같은 구절들은 바로 그러한 인민의 사상감정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이 노래가 태여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심장속에 간직된 운명의 태양을 통일단결의 유일중심으로 엄숙히 재확인하고 만방에 소리높이 알리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터치는 절대적지지와 철석같은 믿음의 합창이다. 그것은 또한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영광과 행복은 영원한것이며 보다 밝고 창창한 미래만이 약속되여있음을 확신하는 긍지와 자부심의 메아리이다.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우리 인민이 더욱 확신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꿈과 리상을 꽃피워줄수 없다는것이다. 하여 가사의 매 절에서 보게 되는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는 결속구가 합창단 가수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으로 강렬하게 터져나오는것이다.

세상에 이렇듯 훌륭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를 가지고있는것은 오직 우리 조국뿐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 조국은 태양조선이고 우리 민족은 태양민족이기때문이다.

어둠의 장막이 하늘을 뒤덮는 밤이 오면 무수한 광원들이 자기를 드러낸다. 거기에는 인간이 수수천년 꿈과 희망을 얹으며 살아온 달과 별들도 있고 현대문명이 창조한 형형색색의 등불들도 있다. 그러나 낮이 되면 그 모든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광원, 수억만개의 별들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빛과 열을 다 합쳐도 대신할수 없는 태양이 자기의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기때문이다.

그 태양과 같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오직 가장 위대한 수령들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만이 자리잡고계신다는 철의 진리를 명곡은 노래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에 높이 울리였던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바와 같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노래인 동시에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의 일심단결의 맥박이고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서사시였다.

거창한 혁명투쟁과 위대한 변혁의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자기 운명의 요구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일먼저, 제일높이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을 열광적인 목소리로 합창하였다. 그것은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사상과 서정의 핵이였고 가장 강렬한 마음속진정의 분출이였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조선의 하늘에 빛나는 태양은 오직 한분 **김정은**동지이시며 자연에는 낮과 밤이 있을수 있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우리 인민에게는 영원히 밝고밝은 세상만이 펼쳐져있음을 억척불변의 의지로 선언하였다.

이 조선 이끄는 힘

사회적통일과 단결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리상하는 문제이다. 국력과 사회발전적견지에 있어서 그 무엇과 대비할수도 없이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통일단결은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계급과 계층의 각이한 리해관계가 대립과 모순으로 존재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한갖 꿈으로만 간주되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통일단결과 혼연일체를 이룩한 우리 조국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실증해주는것은 바로 인민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이다. 만세의 합성이나 칭송의 구호판은 누구든지 쉽게 부를수도 쳐들수도 있지만 자기 령도자를 옹위하는 전인민적송가의 창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내용의 성격과 심도, 형상의 미세한 색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들로 하여 노래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생활의 의미와 맛이 더욱 부각되고 그로 하여 더욱 확고해지는 감정정서는 한 인간의 생활만이 아니라 인민의 운명, 나라의 전도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의 명곡이 인류력사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오늘까지도 불리우고있는 사실들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노래가 인민의 생활과 운명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그것은 분명 인민의 생활과 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반영한 노래일것이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그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실천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가사에도 있듯이 하늘땅 바뀐대도 역풍분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받들어갈 억척의 의지를 선언적인 립장으로 보여준 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생사를 함께 하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로 하여 절세의 위인을 따라 씩씩하게 전진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우렁찬 발걸음소리처럼 도도하다.

온 세상이 우러르며 경모해마지 않는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꽉 차있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이 태양처럼 빛나고있는 이 환희로운 시대의 진실이 담겨져있기에 의지적이고도 장엄한 행진곡풍의 선률을 타고 당당히 울리는 이 노래는 심리와 감정이 서로 다른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을 거침없이 틀어잡을수 있었다. 두뇌가 판별하기 전에 먼저 심장이 화답하는 감동깊은 가사와 선률이기에 명곡은 우리 시대의 전인민적사상감정과 열망을 시대의 장쾌하고 후련한 음악적울림으로 터칠수 있었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천만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인민》이라는 어휘와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신》으로 친근하게 형상함으로써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과의 관계를 보다 가깝게 밀착시켜 노래하였다.

또한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고 형상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립장과 의지를 단호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었으며 직선적이고도 위풍당당한 시대의 대표작으로서의 개성적특질을 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하여 온 세상을 향해 하고싶었던 말, 터치고싶은 격정이 루적의 한계를 넘어 터져나온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는 열글자자체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와 감정이 핵폭발처럼 분출한 명가사이고 명선률이다.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이 노래에는 그 어떤 미사려구도 없다. 진실하고 열렬한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울리는것으로 하여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강렬한 견인력과 폭발적인 감화력으로 시대를 진감하고있는것이다.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과 생활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닫고있으며 뚜렷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게 되였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삶이 은혜로운 태양가까이에 있음을 믿어의심치 않게 되였으며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흔들림모르는 마음의 평온과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기세차고 희열에 넘친 삶을 누리게 되였다. 자기 운명과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사색하게 되고 삶의 기준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때 인민은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생각할것이며 무한대한 힘을 가진 수호자의 품에 안겨 목청껏 환호하듯 이 노래를 부를것이다. 이 노래는 나의것이고 나는 이 노래의 주인이라는 그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어떤 대적앞에서도 굴함없는 힘을 지니게 될것이다.

인간의 운명문제에서 믿음에 대한 론의는 그 어느 나라의 문학예술작품에서나 끝없이 제기되는 주제이다. 만약 그 누가 《당신이 믿는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 이 노래로써 가슴후련히 대답할것이며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후대들에게 가르쳐줄것이다.

명곡의 한자한자의 구절들은 우리 사상과 제도의 붕괴를 꾀하는 원쑤들에게는 가장 무자비하고 준엄한 폭탄선언과도 같다.

이 노래로 하여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운명적인 문제가 되였으며 보다 생활적인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천만군민의 심금을 세차게 격동시킨 이 노래는 음악예술사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야말로 오늘날 조선인민의 생활과 운명에서 가장 가깝고도 목숨처럼 귀중한 노래로 된다는것이다.

위대한 계승의 노래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심장만이 지을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참된 인간의 노래가 바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쳐온 우리 혁명의 력사에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깨끗하고도 열렬한 충정을 소리높이 구가하여온 혁명적음악예술의 공적도 금문자로 새겨져있다.

우리 혁명이 수령결사옹위노래의 자랑찬 력사를 련면히 이어오고있는것은 바로 그 창작가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가장 투철하고 견결한 립장과 순결한 충정을 지닌 참된 혁명가들이였기때문이다.

주체혁명의 려명기에 피바다에 잠긴 조국땅우에 《조선의 별》과 같은 수령송가를 높이 울리게 한 창작가도 예술가이기 전에 《**너는 김혁, 나는 성주**》라고 수령이 안겨준 사랑과 믿음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산 열혈의 혁명투사였음을 우리는 오늘 감회롭게 돌이켜보게 된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한 일군들에게는 남다른 긍지와 자랑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제8차대회에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선서를 다지였던 그날의 청년세대들이 어엿한 당사상전선의 기수로 성장하여 이번 대회에 참가한것이다. 바로 그들의 심장속에서 오늘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가 울려퍼지고있다.

이로써 주체음악예술의 수령결사옹위력사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가 도래한 오늘날 걸어온 길, 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우리 천만군민에게 자기의 억센 바통을 넘겨주었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야말로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시대가 낳은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통일단결의 노래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명줄이고 혁명의 명맥인 백두의 혈통, 통일단결의 전통을 더욱 억척같이 이어준 여기에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사상적, 음악사적공적과 의의가 있다.

이 노래는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높이 휘날리는 우리 당기발의 기세찬 펄럭임소리이며 그 울림의 힘은 몇천개의 핵폭탄의 폭발로도 대신할수 없다. 이 노래가 힘차게 울리는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에는 그 어떤 이색과 반동도 발붙일수 없다. 이 노래를 부르는 천만군민의 마음과 정신은 더욱 순결하게 정화되고있다. 우리 사회와 력사, 한명한명 사람들의 인생은 주체의 넋과 숨결로 더욱 공고하게 통일되였으며 그것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야마는 과학적요인으로 될것이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끝없이 울려가며 우리 당 사상전선의 근위병들은 혁명과 건설의 전구들로, 인민들속으로 용용히 달음쳐갈것이다. 그들이 선창하는 결사옹위의 노래, 통일단결의 노래의 우렁찬 뢰성이 울리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을 감히 어째보려는 온갖 잡스러운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것이며 인민의 투쟁은 더 크고 힘찬 보폭으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하여,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날로 륭성번영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랑과 열정, 랑만에 대하여 높이 구가하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조국의 후손만대앞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사상적기수들이 지니고있는 신성한 의무이며 량심이다.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이 시대에 살고있는 당사상일군들로 하여금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사상사업을 벌려야 하는가를 자기의 시어와 선률로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전체 당사상일군들앞에는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가장 열화같은 충정을 체질화하고 그이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을 인민의 정신력과 의지의 폭발로 실증해주는것이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당사상일군들은 누구보다먼저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리론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설명으로가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진정의 목소리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의 심장속에 속속들이 심어주어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깊숙이 잠그고 인민의 감정과 생각, 북받치는 투쟁의 희열과 래일의 아름다운 꿈을 함께 느끼고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사상문화적공세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기본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위투사들이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은 마땅히 형형색색의 비단보자기를 씌워 적들이 우리 내부에 퍼뜨리는 자본주의사상문화를 참신하고 강력한 사상전의 포화로 격파분쇄해버리겠다는 견결하고 투철한 혁명적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은 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자기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을 검증받는다는 관점을 지니고 끊임없이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 날로 발전하는 인민의 사상정서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상전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가 펼쳐진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당 사상전선의 기수들은 가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선창자가 되여 사랑하는 군대와 인민과 함께 어깨겯고 웨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께 끝까지 충실하리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와 같이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순결하고도 절대적인 믿음과 충정의 노래를 부르는 군대와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우정혁, 리 건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갈 신념의 맹세 하늘땅을 진감한다. 본사기자 김성남 찍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 전당이 끓는다

기세충천하여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겠다

대회참가자들과 나눈 이야기

전당의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받아안고 무한한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영광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직접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심정은 더욱 뜨겁고 강렬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길은 순탄치 않으며 혁명전선마다에서 견결한 혁명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되고 준비된 사상일군들을 부르고있습니다.》

우리는 대회참가자들을 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

기자: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의 체험자, 목격자로 된 동지들을 축하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받아안고 격동과 흥분으로 들끓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직접 만나고보니 우리도 격정을 누를길 없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나만이 아니라 대회참가자들은 누구나 열광으로 끓어번지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하던 격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인민적인 문풍으로 그토록 심오한 사상을 담은 연설을 받아안으니 천출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고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의 웨침이 절로 튀여나왔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분을 령도자로 모시고있는가 하는 무한한 행복감으로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졌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리청수: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투쟁해온 기간은 몇해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그이의 비범한 위인상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이번 연설을 통해 그이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기였다.

위인의 높이는 곧 사상의 높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연설에는 세기와 력사를 휘여잡으시는 그이의 비범한 창조의 숨결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여 력사적인 2월19일 문헌을 받아안은 평안남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초급당비서 한정철동무도 흥분을 걷잡을길이 없어 《정말 우리 원수님은 비범한 사상과 리론으로 시대와 력사를 추동하시고 만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시는 태양이시다. 마치도 40년전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뵈온것만 같다.》라고 토로하였다고 한다.

안주시당위원회 비서 황상철: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밝혀주신 전투적과업들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와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연설의 자자구구는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들이 보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197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부서일군들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시안의 들끓는 전투장들에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나가 사상포문을 드세게 열겠다.

금야군당위원회 부부장 리익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조국보위초소와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병사들과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묘술을 찾아내신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귀감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수령님식, 장군님식일본새를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구현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사업하여 함남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겠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특히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령도자가 벽을 울리면 산악같이 일떠서 강산을 울린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어 대회장을 나서는 길로 기세충천하여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든든히 차지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겠다.

기자: 대회참가자들모두가 새시대 당사상일군의 전형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사기자 리정수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연설에 접한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에 류달리 충격깊이 들어앉은 말이 있다.

방어형과 공격형!

동림군당위원회 비서 서상현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그 대목을 상기하며 말하였다.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되여야 한다고 하신 연설의 구절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 당사상전선에서 어떤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야 하며 당사상일군들이 자기 위치를 어떻게 똑똑히 잡아야 하는가를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말해주고있다고 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벌리면서 공격형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한 일군의 심정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통하여 자신을 깊이 자각하고 새롭게 분발해나선 전당사상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 여기에 그대로 어려있다.

◇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언제나 공격형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아무리 어려운 난국이 조성되여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왔다.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두차례의 복구건설, 류례없이 엄혹했던 1990년대 고난의 돌파전에서의 승리를 비롯한 우리 혁명의 년대와 년대마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들에는 사상전에서도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싸워이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령도방식이 거울처럼 비껴있다. 그 고귀한 전통을 이어 오늘의 사상전에서도 맹렬하고 적극적인 공격정신으로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가 연설의 구절구절에 어려있는것이다.

◇ 공격형으로!

이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전반에 울리는 시대의 엄숙한 부름이다.

사상일군들은 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사상일군들은 비행장에 눈이 올 때 방사제설기로 활주로에 눈이 쌓이지 못하게 날려버리는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앞질러가면서 사상사업을 작전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 나팔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실속에 내려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은 사상사업에서 공격전을 드세차게 들이대여 전국을 들끓게 하고 전군을 혁명화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위대한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단천지구광업총국 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한 단천지구광업총국 당위원회 일군들도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다.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밝혀진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가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총국아래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리여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깊이 학습하면서 당위원회일군들은 그 측면에 특별히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을것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이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불이 될것입니다.》

김형준, 김철룡, 리광해동무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부일군들은 연설의 자자구구를 깊이 새기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돌이켜보았다.

—사상사업에서의 패배주의는 경제사업에서의 패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오늘의 사상공세는 사상일군들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단위에서 걸린 문제가 바로 그것이였던것이다. 광업총국적으로 연료와 설비, 자재문제가 걸려 애를 먹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실태만 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장거리벨트콘베아를 정상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설비, 부속품들이 제때에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생산과정에 걸린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군 하였다. 그럴 때면 의연히 그 단위 책임일군이나 자재보장을 맡은 성원들의 역할을 더 높일데 대해 강조하군 하였지 자신들부터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걸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였던것이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위원회일군들은 분발해나서고있다.

우선 단위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령도사를 다시금 깊이 새기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이고있다.

렴국성, 로은철, 홍성철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밤잠을 잊고 학습전투를 벌리고있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갱막장까지 찾으시여 광부들의 건강을 념려해주신 사적, 대흥청년영웅광산을 찾으시여 광부들이 드는 빵맛까지 보아주신 사적…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일해나감으로써 당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갈 맹세를 다지고있다.

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혁명령도사를 깊이 학습하는 한편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작전도 옳게 세워나가고있다.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목소리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묘술을 찾아내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귀감을 교과서로 삼고 그들은 직접 북채를 쥐고 북통을 두드리며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작전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새롭게 일판을 벌려가는 이들의 투쟁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전경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원들 본사기자 찍음

대회장에서 다진 맹세 기어이 지키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선전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번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수많은 당사상일군들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들중에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류도홍동무도 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주체철생산과 강철생산에서 일대 기적을 창조하겠습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선전일군들은 나라의 주체공업을 강철기둥으로 떠받드는 강선의 혁명적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게 함으로써 강선로동계급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기수, 돌격대가 되게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토론을 마감하면서 다진 그의 맹세는 기업소의 모든 당사상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이 전해진 날의 일이였다.

먼저 연설의 자자구구를 깊이 학습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는 부서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며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 안명수동무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드팀없이 실천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몸이 천조각, 만조각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진 맹세를 기어이 지킵시다!》

그의 말에 호응하며 일군들은 사업목표를 더욱 높이 정하였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년대와 년대마다에서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한 기업소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새겨주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드세차게 벌리였다. 특히 일군들은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모퉁이를 옳게 포착하고 거기에 어깨를 먼저 들이밀었다.

주원료직장에 나간 신명섭, 강성철, 김경일, 김태성동무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부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을 북돋아주어 불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갔다.

대회장에서 다진 맹세를 기어이 지키려는 이곳 당사상일군들의 피타는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자

불멸의 대강에 접한 대회참가자들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대회장을 나서는 길로 병사대중과 인민들속에 들어가 당중앙의 의도를 알려주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절세의 위인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는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신 강령적로작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의 사상론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고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우리 당이 앞으로도 영원히 사상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려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번 연설은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라고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은 사상의 거장을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는 당사상일군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참으로 심오한 사상들이 세차게 맥박치고 사상사업을 기백있게 진행할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당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고 격정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원산시당위원회 비서 문학원은 당사상전선에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정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사상일군들은 꺼지지 않는 홰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늘 그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강원도당위원회 비서 김명익은 연설을 받아안으니 마치 아득히 높은 령에 단숨에 오른듯 한 느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며칠전 《로동신문》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되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신 소식이 실리였다. 우리 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대회장에 나오시여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겠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고산과수농장건설장,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 등 주요건설장들에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겠다고 명백히 밝혀져있다고 말하였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비서 리형철은 과학자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게 하겠다. 새 세대 과학자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렬구를 내도록 하겠다고 격동에 넘쳐 말하였다.

철도성 정치국 부국장 오룡하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겠다.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초급당비서 정완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고 자신의 사업과정을 깊이 돌이켜보게 되였다고 하면서 농업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있게 심어주며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총발동시켜나가겠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남포시당위원회 부부장 리용천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목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이다. 우리는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겠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장으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창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고 하면서 늘 탄부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함경남도당위원회 부장 양호순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을 발동시키고 대고조의 기상이 온 도에 차넘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정주시당위원회 비서 백홍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안의 모든 사상일군들이 들끓는 포전에서 화선식으로, 공세적으로 선전선동사업을 벌리도록 함으로써 올해 알곡고지점령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개천기관차대 초급당부비서 진정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지난 시기의 낡은 사업방법을 뿌리뽑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힘찬 포성을 울리겠다고 말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리영남은 인민군대정치일군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혁명적대고조로 우리 당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신천군 새날농장 제13작업반 3분조 선동원 양화숙은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에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내용을 심장깊이 새기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했던 선동원답게 올해농사에서 분조가 앞장서도록 불씨가 되고 기발이 되여 투쟁하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리종석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는 대회참가자들 본사기자 찍음

수령결사옹위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삭주군당위원회 지도원이였던 최영찬, 김경일, 군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윤동호,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이였던 백광혁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마음속에 확고히 굳어진 사상감정이기때문에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들을 목숨바쳐 지켜낸 무재봉의 17명 영웅전사들을 기억하고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오늘 삭주땅에서 새 세대 결사옹위육탄용사들의 위훈이 전해져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불길속에 남은 마지막 네사람

지난 1월 17일 오후 삭주군문화회관에 뜻밖의 화재가 났다. 군안의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저저마다 화재현장으로 달려왔다. 직업도 직무도 나이도 서로 달랐건만 불길앞에서 그들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모두가 불속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부터 안전하게 모셔내오기 시작했다.

불의의 재난속에서도 항상 재산이나 자기 생명에 앞서 제일먼저 구원해야 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고 그런 행동이 이미 체질화되여있는 당원들과 인민들에 의하여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와 당의 기본구호들은 모두 안전하게 모셔졌다.

그사이 불길은 건물안팎으로 점점 더 세차게 번져졌다. 사람들이 화재진압전투를 치렬하게 벌리고있을 때였다.

《저게 뭐야!》 하는 다급한 웨침과 함께 모두의 시선이 불길이 널름거리는 회관의 출입문으로 쏠리였다. 그곳에서는 불이 달린 몸을 힘겹게 끌며 두사람이 기여나오고있었다. 삭주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원 고영철,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박윤철동무들이였다. 그들은 곧 의식을 잃었다. 두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얼마후 정신을 차린 그들을 통하여 회관건물안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다는것을 알게 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와뜰 놀랐다.

《그들이 누구요?》

《몇사람이나 되오?》

고영철, 박윤철동무들은 가까스로 불길속에 남은 네사람의 이름을 알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빨리 회관으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병원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때는 삼단같은 불길이 회관을 완전히 삼켜버린 뒤였다.

가까이 다가설수조차 없는 화염속에 남은 그들 네사람은 화재현장에 처음부터 있었던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 최영찬, 김경일, 군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윤동호,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백광혁동무들이였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살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찌하여 살을 태우는 불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최후를 마치였는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고영철, 박윤철동무들은 그 목격자였다.

화재가 난 건물안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당의 기본구호들을 건물밖으로 내온 후였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화재진압전투를 도우려고 소방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고영철동무는 불속 어디선가 간간이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자욱한 불길과 연기너머 무대앞쪽에서 몇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였다.

고영철동무는 다시 건물안에 뛰여들었다.

최후에 비낀 삶

다시 거센 불길소리, 뿌지직뿌지직 연방 울리는 나무타는 소리…

여기에 최영찬동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다 풀었다. 이젠 구호를 내리자!》

그다음엔 여럿의 목소리—

《조심, 조심!…》

네사람이 남긴 말은 이것이 전부이다.

요란한 말도, 그 어떤 비장한 웨침도 아니다. 생명이 경각을 다툰 그 시각이였건만 그들의 어조에서는 오히려 침착성이 느껴졌다.

최영찬동무가 사다리에 올라 대형구호판을 고정시킨 철근을 풀며 한 말이다.

삭주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이였던 최영찬, 김경일, 군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윤동호,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이였던 백광혁동무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와 당의 기본구호들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거창한 력사적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당일군, 청년동맹일군, 인민보안원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은 당의 사상을 지켜 한목숨바쳐 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인생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누군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앞을 막아섰을 때였다. 《저기 사람들이 있소!》 그는 무작정 무대앞을 향해 달렸다. 인민보안원 박윤철동무가 따라섰다.

《동무들은 뭐요? 죽자고 그래?》

불덩이가 비오듯 떨어져내리는 무대앞에 이르러 이렇게 벼락같이 소리치던 고영철동무는 무춤 굳어졌다. 그곳에는 네사람이 있었는데 세사람은 사다리를 부여잡고있었고 한사람은 그것을 타고 오르고있었다.

《아직 구호가 남아있소!》 사다리를 잡고있던 세사람이 그들을 향해 동시에 소리쳤다. 건물천정 바로 밑에 설치된 대형구호판이 고영철, 박윤철동무들의 눈에 확 안겨왔다.

순간 고영철, 박윤철동무들은 가슴이 섬찍했고 한편 이들이 아니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번 했는가 하는 생각에 목이 꽉 메여올랐다.

(아, 동지들!)

사다리에 오른 사람은 최영찬동무였고 밑에서 그것을 잡고 안깐힘을 쓰는 사람들은 김경일, 윤동호, 백광혁동무들이였다. 고영철, 박윤철동무들은 지체없이 그들과 합세하였다.

대형구호판은 8m 되는 높은 곳에 있었다. 최영찬동무가 움직일 때마다 쇠줄로 이어매놓은 사다리가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천정에서는 불덩이가 쉬임없이 떨어져내렸고 연기로 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당의 기본구호를 내리웠다.

아마도 보통때라면 6명의 인원으로 그 거대하고 육중한 대형구호판을 내리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초인간적인 힘으로 대형구호판을 무사히 내리웠다. 바로 그때 그들의 머리우에서 천정이 무너져내렸다.

비낀 삶

다시 거센 불길소리, 뿌지직뿌지직 연방 울리는 나무타는 소리…

여기에 최영찬동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다 풀었다. 이젠 구호를 내리자!》

그다음엔 여럿의 목소리—

《조심, 조심!…》

네사람이 남긴 말은 이것이 전부이다.

요란한 말도, 그 어떤 비장한 웨침도 아니다. 생명이 경각을 다툰 그 시각이였건만 그들의 어조에서는 오히려 침착성이 느껴졌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만이 보여줄수 있는 태연자약함이였고 수령옹위를 필생의 사명으로, 수령옹위에 생명을 바치는것을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만이 간직할수 있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뜻밖에 대형구호판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무조건 내리워야 한다고 결심하였을 때 그들은 벌써 희생을 각오하였다. 그들은 서로 무언의 약속을 나누고 자기 한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당의 기본구호를 구원하는 길에 주저없이 나섰다. 그리고는 그 불속에서 사다리를 찾아들고 끝내 구호판을 내리웠고 온몸으로 화염을 막아 구호판을 덮었다.

건물안에는 밖으로 나갈수 있는 출입문이 6개나 되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인것은 생명을 구할 출로가 아니라 당의 기본구호를 구원하는 한길뿐이였다.

그들은 당사상일군이였고 청년동맹사상일군이였으며 수령보위의 제1선에 선 인민보안원이였다.

최영찬, 김경일동무들이 군당위원회 지도원으로 사업한지는 1년, 백광혁동무가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으로 일한지는 3년밖에 안된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지도원으로 사업하던 윤동호동무가 군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을 시작한것은 불과 열흘전이였다. 하여 이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동지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무한히 진실하고 성실하며 고지식한 사람들이였다는것이다.

삭주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이였던 최영찬동무의 사업수첩의 첫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전우, 동지라고 불러주시였다.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빛내이기 위해서라면 내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리라!》

최영찬, 김경일동무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군안의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시여 《동무 누구요?》하고 물으시면 《예, 저는 군당 선전일군입니다.》라고 대답을 올리고 《무엇하러 나왔소?》라고 물으시면 《당정책을 해설하러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릴수 있는 당사상일군이 되고싶어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과 새로 나온 도서들, 노래들이요.》

이렇게 말하며 최영찬동무가 금부리당 일군에게 땀에 푹 젖은 자기 배낭을 넘겨준것은 그가 희생되기 불과 며칠전의 일이다.

김경일동무에게도 언제나 땀에 젖어있는 배낭이 있었다. 경제선동을 나갈 때마다 책이며 하모니카를 비롯한 악기들을 넣어 지군 하던 그 배낭에 어느날에는 부속품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한 공장에서 뜻밖의 설비고장으로 생산이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고 그가 먼길을 걸어 해결해온 부속품이였다. 그 부속품배낭을 놓고 그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최영찬, 김경일동무들의 배낭은 이렇게 늘 말없는 선동자가 되였다.

군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윤동호동무의 유물들중에는 한장의 자리표가 있다. 그것은 그가 대학시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을 때 지녔던 자리표였다. 언제인가 동창생인 금강군청년동맹위원회 최충일동무가 그 자리표를 왜 간수하고있는가 물었을 때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관람한 그날을 평생 잊을것 같지 못하오. 이 자리표를 보면 어쩐지 어버이장군님 가까이에 있는것 같아 가슴이 막 설레이는구만.》

바로 이런 윤동호동무였기에 지난 1월 17일 아침도 그는 많은 거름과 영농물자를 싣고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군안의 한 농장을 찾았던것이다.

백광혁동무가 두고 간 수첩에는 인민보안부문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는 평양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 대원 리경심동무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접하고 수첩에 이렇게 썼다.

《공화국영웅 리경심과 나! 혁명의 수뇌부를 어떻게 보위해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준 영웅동지!

동지의 모습은 나의 거울, 동지가 발휘한 영웅적희생정신을 따라배워 이 한몸 서슴없이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바치리라!》

그들 네사람의 경력에는 공통적인것이 있다.

김경일, 최영찬, 윤동호동무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서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들이다. 그들은 군사복무의 그 자세로 사회생활의 순간순간을 정보로 걸어왔다.

백광혁동무도 중학교를 졸업한 그때부터 오늘까지 고스란히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 성실한 복무의 자욱을 새겨온 참된 인민보안원이였다.

그들은 30대였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있었다.

최영찬, 김경일, 윤동호, 백광혁동무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불길이 활활 타번지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태여나 당의 품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랐고 그 품속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곧바른 인생길을 걸으며 자라온 순결한 새 세대들이다. 무재봉영웅전사들의 위훈을 피끓는 청춘의 가슴에 새기며 성장하였고 동해의 해군용사들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당원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가슴뜨겁게 해설해주며 누구보다 눈시울적시던 이들이였다.

비록 그들의 인생경력은 짧고 생활은 평범했지만 그 한구간한구간, 한토막한토막이 티 한점 없이 깨끗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기에 생명에 위태로운 불속에서도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주저없이 걸음을 내짚은것이다. 당에서는 시대가 낳은 새세대 결사옹위육탄용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었으며 그들의 어린 자식들을 혁명학원에 불러주었다.

지난 1월 25일,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이 백광혁동무의 집을 찾았다. 그의 딸의 생일이였던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을 미처 익히지 못했고 아버지란 말도 금방 번지기 시작한, 아버지의 최후를 리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예령이를 품에 안고 인민보안원들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을 때였다. 두살 난 철부지의 입에서 노래 《불타는 소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노래는 백광혁동무가 자식에게 배워준 첫 노래였다. 또한 그가 자나깨나 간직하고 산 마음이였다. 백광혁동무의 안해도, 인민보안원들도 모두가 그 노래를 합창했다.

결사옹위전사들의 넋은 이렇게 이어지고있다. 우리 시대 당일군, 우리 시대 청년일군, 우리 시대 인민보안원의 빛나는 모습을 새기고 간 최영찬, 김경일, 윤동호, 백광혁동무들,

그들의 최후는 순간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한생이, 값높이 수놓아갈 래일이 비껴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미더운 당사상일군들의 목소리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절세위인의 믿음어린 친필을 심장에 새겨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청년전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에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높뛰는 인민보안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에서 그들의 인생관을 읽고있다.

— 수령결사옹위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우리는 이 글을 최영찬, 김경일, 윤동호, 백광혁동무들이 숨지는 순간까지 품에 안고있은 당의 기본구호로 맺는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본사기자 리경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50돐 기념우표가 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53(1964)년 2월 25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기념우표(개별우표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기념우표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기념》,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글발들이 댕기와 황금이삭 주렁진 벼단에 새겨져있다.

또한 《주체53(1964)-주체103(2014)》, 《50돐》이라는 글발도 부각되여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력사적전변을 반영한 기념우표는 력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해결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커다란 의의와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몽골대사관 외무성 일군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몽골대사관이 2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외무성 일군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외무성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몽골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경기를 하고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우리 인민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준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가득 젖어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몇달전까지만 해도 허리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평범한 주민입니다.

그러한 제가 김만유병원 마취수술과 의료집단의 뜨거운 정성속에 병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대지를 마음껏 걷게 되였습니다.

부과장 고성국, 의사들인 강명수, 서필선, 김류성, 렴학철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집단은 저에게 병을 꼭 고칠수 있다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에 달라붙었습니다.

저의 병치료를 위해 병원적인 협의회만 해도 수십차례, 저의 몸으로 흘러든 값비싼 약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성의껏 마련한 별식도 안겨주고 중환자치료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저의 병상태에 대하여 알아보며 온갖 정성을 다하던 의사, 간호원들을 정말 잊을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의 머리맡에서 밤을 지새우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리는 그들의 모습은 다심한 친정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며 온갖 정성을 다하던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진정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90여일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절감한 나날이였습니다.

이런 고마운 인민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고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저는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대동강구역 문수2동 64인민반 서연숙

주체문학의 혁명적사명과 본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3(1974)년 2월 19일에 선포하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은 주체적문학예술을 찬란히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이 위대한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문학의 혁명적사명과 본분이 새롭게 밝혀졌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차고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의 문학은 주체의 요구대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형상작품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하게 창작되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문학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모든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 되고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인식교양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서정시작품들과 서사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여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문학작품들도 훌륭히 창작되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소설, 시가작품들은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예술적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으로 하여 강렬한 미학적감화력을 발휘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창작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을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에 형상된 주인공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의 훌륭한 벗으로 되여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또한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되여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고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확고히 고수된 사회주의문학예술로 그 혁명적성격과 전투적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펼쳐진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문학이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우리 문학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문학부문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문학예술의 생명선이며 원수님의 령도를 가장 순결하게,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우리의 문학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문학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면 수령형상창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시기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풍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보다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조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께서 조국과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풍모들을 생활적으로 격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이 빛나게 실현된 오늘 우리 문학앞에 특별히 중요하고 절실하게 나서는 과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시고 군사전략가이시며 고결한 인민적풍모로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겠는가를 환히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백두산형의 장군을 모시고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나게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에 힘과 정열과 재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력사적인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한 선군시대 참된 애국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은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실천행동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전형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인간적풍모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함으로써 천만군민의 마음을 충정의 세계에로 승화시키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문학창작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미학관을 창작활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내용들을 깊이있게 반영할뿐아니라 그 품격에 맞는 새로운 양상과 형식을 적극 탐구하여야 하며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혁신해나가야 한다.

모든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시대의 장엄한 흐름에 보폭을 맞추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서재경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황해북도 정방산버섯공장에서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정방산버섯공장에서 많은 버섯을 수확하였다.

2만 3000여㎡의 부지면적에 8600여㎡의 건축면적을 가진 정방산버섯공장은 원료분쇄로부터 균주입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콤퓨터화되고 무균화가 철저히 보장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몸소 인민군대에서 그 본보기를 창조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각 도들에서 받아들이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버섯공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버섯기질분쇄기와 혼합기 등 여러가지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과 건설이 완공되는 즉시 버섯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원래 있던 건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도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건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주변환경의 위생성도 철저히 보장하면서 건설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려나갔다.

버섯생산을 맡은 재배공들은 겨울조건에서도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많은 종균을 배양하여 건설이 끝나면 지체없이 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해 지난해말 현대적인 버섯공장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올해초에는 설비들의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버섯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첫 버섯을 수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에서는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온갖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생산된 첫 버섯을 황해북도육아원과 사리원애육원 그리고 도안의 전쟁로병들과 로력혁신자들에게 보내주었다.

김광성, 문혜순, 최경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인민의 봉사기지—메아리사격관

어버이사랑 전하며 끝없이 울려갈 행복의 메아리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대중봉사기지가 마련되였다.

청춘거리의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새롭게 개건된 메아리사격관!

오늘 메아리사격관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마다에 어린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전하여주며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메아리사격관이 오늘과 같이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해전 2월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몸소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는 대중봉사기지로 새롭게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과 사격관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경기용총탄의 질을 더 높이는것과 함께 메아리사격관을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봉사기지로 훌륭히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메아리사격관개건공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개건공사는 첫시작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의 련속이였다. 한것은 공사가 이미 있던 메아리사격관의 안팎을 일신시키고 그곁에 연건평이 수만㎡나 되는 공장건물을 새로 일떠세우는 방대한 공사였던것이다.

하지만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으로 체질화된 군인건설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오직 하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단숨에의 정신으로 제기일내에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결사의 각오가 뜨겁게 굽이쳤다.

날과 달을 주름잡으며 벌린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속에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은 공사가 시작된지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전변의 새모습을 펼칠수 있었다.

지난 1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치아름다운 청춘거리의 산기슭에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 새롭게 일떠선 메아리사격관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설비와 사격 및 전자유희오락시설들을 갖춘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경기용총탄공장을 손색없이 정말 잘 꾸렸다고, 멋쟁이공장,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리고 메아리사격관의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니 마치 호텔에 온것 같다고,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인 여러 사격장과 활쏘기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잘 갖추어놓았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 사격관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적재부를 안겨줄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만면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진정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은 언제나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이고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려 솟아난 인민사랑의 숭고한 결정체인것이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개건된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에 대한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은 자신께서는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선군혁명령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면서도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생활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이제 머지않아 복받은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연 메아리사격관에서는 사람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수도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그 환희의 메아리와 더불어 메아리사격관은 인민을 위한 절세위인의 자애로운 사랑의 력사를 전하며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위인과 일화

지난 11일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전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일신한 사격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현대적인 여러 사격장과 활쏘기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명철한 판단력과 뛰여난 예지를 지니신 천출위인,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것을 다시한번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일군들의 격정

메아리사격관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0m보총사격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사격관의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새롭게 꾸려진 사격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였다.

일군으로부터 사격장의 방음장치와 흡음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격을 할 때 귀를 상할수 있기때문에 그들에게 귀막이를 해주어야 한다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만하면 사격장의 모든것이 흠잡을데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일군들은 머리가 숙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새로 생긴 계단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은 사격장관람석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50m보총사격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입문에서 사격좌지쪽으로 향한 경사진 통로를 보시고 유모아적인 말씀을 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다음순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의 얼굴에 자책의 빛이 비끼였다.

그 말씀은 관람석의 미끄러운 통로가 인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는 뜻의 말씀이였던것이다. 그후 그 자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경사진 통로대신 새로 계단이 생겨나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활쏘기장 하나에도

사격관일군들은 사격관의 실내에 활쏘기장을 새로 꾸리면서 길이가 30m이면 실내활쏘기장치고는 큰 규모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0m실내활쏘기장을 돌아보시면서 활쏘기장을 좀더 크게 꾸렸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활쏘기장을 아이들의 야영소들에도 하나씩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절실히 느끼였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활쏘기장을 보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가슴이 뜨겁게 젖어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달라진 목표규격

25m권총사격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목표의 규격을 어디에 기준하여 정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국제사격경기에서 쓰는 목표와 규격이 같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목표가 작다고,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는것만큼 목표를 더 크게 만들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또다시 이름할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졌다.

이렇듯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영광의 시간은 일군들 모두에게 있어서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를 다시한번 심장깊이 절감하게 한 뜻깊은 시간이였다.

본사기자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답게

메아리사격관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도록 꾸려진 현대적인 봉사기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을 하나 하여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격관에는 실내 및 야외사격장과 30m실내활쏘기장, 야외체육장, 광선총사격장과 전자권총사격장, 전자오락장, 사격교육실, 식당, 상점 등이 꾸려져있다.

실내사격장과 야외사격장에서는 모두 경기용총탄을 사용하는데 실내사격장에는 50m보총사격장과 25m권총사격장이 있다.

야외사격장에는 12개의 사격좌지가 마련되여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좌지에서는 25m권총사격을, 6번부터 10번까지의 좌지에서는 50m보총사격을 하게 되여있고 11번좌지와 12번좌지에서는 50m거리에 있는 실지 살아있는 동물을 목표로 사격을 하게 되여있다.

30m실내활쏘기장은 사격관의 2층에 꾸려져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6개의 목표판이 설치되여있다. 이뿐이 아니다. 메아리사격관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광선총사격장과 전자권총사격장, 전자오락장이 마련되여있다.

광선총사격장에는 사수의 앞에 대형현시기가 설치되여있는데 현시기에는 실지 살아움직이는것 같은 여러가지 동물들이 목표로 나타난다. 광선총사격장과 마찬가지로 전자권총사격장에서도 손님들은 실탄으로 사격하는듯 한감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메아리사격관의 사격교육실에서 손님들은 사격관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세유지로부터 시작하여 사격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수 있다.

전자오락장에는 수자맞추기와 그림맞추기 등 수십대의 현대적인 오락기재가 설치되여있는데 여기서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길수 있다.

지금 최명숙, 김정옥, 문종옥동무를 비롯한 이곳 봉사자들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격과 오락, 체육활동 등을 즐길수 있도록 모든 설비와 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에서 손님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게 봉사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은 안팎이 모두 절색인 만점짜리 봉사기지이다.

지난 11일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사격장과 야외사격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메아리사격관의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니 마치 호텔에 온것 같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메아리사격관은 그 위치부터가 명당자리이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황홀경

사시절 푸르른 솔숲이 우거진 야산기슭을 따라 여러동의 봉사건물들이 계단식으로 조화롭게 들어앉았는데 《메아리사격관》이라는 글발만 아니라면 마치도 현대적이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진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

사격관본관의 앞면 한쪽벽체가 부드러운 곡선미로 처리되고 외부는 은은하면서도 밝은 색의 건재로 단장되였으며 현관부분에 유리로 된 채양이 특색있게 설치되여있어 첫눈에도 건설의 조형성과 예술성이 잘 보장된 독특한 건축물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사격관의 내부는 더욱더 볼만하다. 회전문을 통과하여 들어서면 현관홀이 나지는데 홀정면벽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색있다고 치하하신 사격관마크가 형상되여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인건설자들과 기술자들은 사격관의 내부구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현대미를 살리는데 모를 박고 개건공사를 진행하였다.

현관홀과 복도들의 벽체와 바닥이 특색있는 마감건재로 장식됨으로써 봉사기지로서의 고유한 양상과 현대미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있으며 홀내부와 복도들에 국부조명과 간접조명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건물내부의 립체감을 최대한으로 살리였다.

실내사격장들과 실내활쏘기장, 전자권총사격장과 전자오락장을 비롯한 사격관의 모든 곳이 흠잡을데 없이 훌륭하게 꾸려졌다.

50m보총사격장과 25m권총사격장은 각각 8개의 사격좌지로 되여있는데 매 좌지마다에는 사수들이 사격결과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점수판이 설치되여있다. 사수들은 사격후 손접촉식대면부로 되여있는 점수판을 통하여 탄착점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얻게 된다.

이곳 일군들인 김춘성, 리윤화동무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재능있는 과학자집단이 개발한 이러한 콤퓨터화상처리프로그람은 사수들이 사격결과를 빠른 시간안에 가장 정확히 알수 있게 하는데 카메라와 콤퓨터를 결합한 메아리사격관의 탄착점식별 및 점수평가방식은 착상부터가 독특하고 그 수준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사격후 총탄자욱이 찍힌 점수기록지는 사수의 원격조종에 의해 자동적으로 교체되게 되여있으며 매 사격장에는 관람석과 함께 종합점수판이 설치되여있어 손님들은 앉은자리에서 사수들의 사격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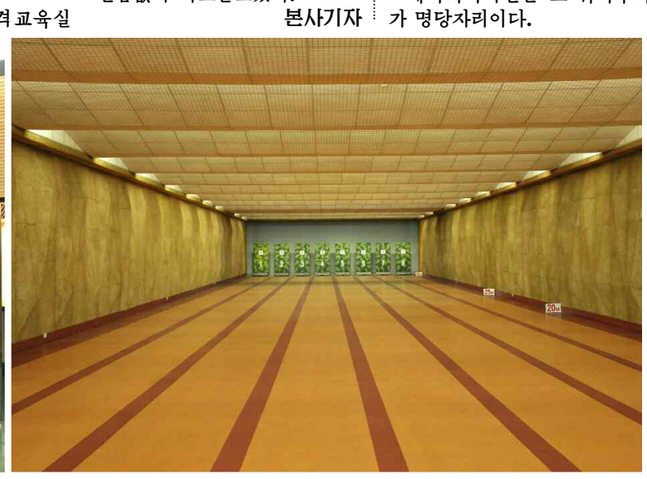
30m실내활쏘기장도 훌륭하다. 활쏘기장은 비록 실내에 자리잡고있지만 벽체와 바닥을 통나무와 잔디를 형상한 특색있는 건재로 처리함으로써 자연미가 최대한으로 살아나고 마치도 숲속에서 활을 쏘는듯 한감을 준다.

광선총사격장과 전자권총사격장은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취미에 맞게 꾸려졌는데 목표로는 살아움직이는것 같은 곰과 노루, 토끼, 공중에 매달려있는 병 등으로 형상되여있어 사격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한껏 살려주고있다. 메아리사격관에는 이밖에도 식당과 상점, 휴식장소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여있는데 모두가 다 현대적이면서도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훌륭하게 꾸려졌다.

참으로 돌아보면 볼수록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특색있게 실현되고 인민성, 대중성이 철저히 보장된 메아리사격관은 누구나 한번 와보면 또 오고싶어지는 최상의 봉사기지이다.

본사기자

50m 보총사격장



30m 실내활쏘기장

대중식사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실에서 은을 내는 기둥식자력선별기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도입한 여러대의 기둥식자력선별기가 큰 은을 내고있다.

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광산들에서 더 많은 정광을 생산하며 정광의 품위를 보다 높이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철정광품위를 제고하는 기둥식자력선별기를 설계,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라는것을 명심한 실장 김원영, 연구사들인 김세훈, 송원명동무들은 현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기둥식자력선별기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하나하나 해명해나가며 과학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제작에 이르는 많은 공정들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분발하여 자력선별기의 합리적인 구조정수와 그옆에 설치하게 될 영구자석의 세기, 입구로 들어가는 조정광의 립자크기, 물분사판의 구조와 선별기안에서 류체흐름속도에 대한 3차원적인 해석 등 기둥식자력선별기의 특성을 해명하는데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자력선별기는 광물의 자기적성질의 차이를 리용하여 자성산물과 비자성산물을 가르는 설비이다.

과학자들이 현장의 기술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새롭게 도입한 기둥식자력선별기는 시간당 많은 량의 조정광을 처리할수 있는 설비이다.

이 기둥식자력선별기에 분쇄된 조정광을 우에서 아래로 내려떨구면 자성을 띤 자철광알갱이들은 자기마당에 의하여 응결되여 그대로 떨어지고 자성을 띠지 않은 석영알갱이들은 우로 올라오는 물흐름에 의하여 넘어나게 된다.

현장의 일군들도 과학기술이야말로 광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자들이 짧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첨단기술에 의한 기둥식자력선별기가 도입됨으로써 정광의 품위를 보다 높이고 광산에서 생산지휘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에서 해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철정광품위의 제고에서 큰걸음을 내짚게 한 기둥식자력선별기는 광산의 여러곳에 도입되여 은을 내고있으며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광산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 연구성과를 여러 광산들에 확대도입하여 질좋은 정광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킬 굳은 의지와 드높은 신심을 안고 떨쳐나선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사기는 매우 높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연구소의 일군들은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밑에 절박한 연구과제에 력량을 집중하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금속공업을 받드는 뿌리가 될 애국의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고있는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투쟁은 알찬 열매를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농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신의주시인민보안서 보안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인민보안서의 인민보안원들이 년초부터 신의주시 삼교협동농장의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도와주고있다.

지난해에도 이곳 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은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삼교협동농장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보안서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자체로 마련한 삽, 호미, 낫, 물초롱을 비롯한 많은 소농기구들과 뜨락또르부속품들을 화물자동차에 싣고 농장을 찾아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거름실어내기와 모판준비작업을 도와주어 당면한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그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인민보안원들의 진심어린 지원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올해농사를 잘 지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결의를 다지였다.

시인민보안서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새해 첫 한달동안에만도 수천t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냈으며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과 비닐박막, 활창대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마련하여 농장에 보내주었다. 이들은 농촌지원목표를 보다 높이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기에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인민보안원들의 진심어린 지원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개 농장의 농사차비를 스스로 맡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신의주시인민보안서의 일군들과 보안원들의 소행은 참으로 자랑할만하다.

특파기자 송창윤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주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높이 떨치고있다.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공화국을 가리켜 가장 자주적인 나라, 한다면 하는 배짱을 가진 작고도 큰 나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곧 사상의 위력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웠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사상의 위력으로 풀어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며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에서 세계는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성과 그 양양한 전도를 락관하고있다.

사상을 틀어쥐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이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완성해나가는 근본열쇠가 있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사상진지가 와해되면 맥을 출수 없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상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상의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라는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상사업을 홀시하는것은 기본을 놓치는것이며 이것은 필연코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가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사상의식을 단순히 현실세계의 반영으로 보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여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지면 사상의식도 저절로 개조될것이라고 보았다. 그로부터 이 나라들은 경제건설일면에만 치우쳤다. 이 나라 사람들속에서는 근심걱정이 없어지고 안정된 생활이 계속됨에 따라 혁명적열의가 점차 식어지고 편안히 지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거짓선전에 넘어가 사회주의를 배반하는데로까지 굴러떨어졌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는 경제건설자체도 침체에 빠지고 종당에는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던 국방력도 하루아침에 파괴되고말았다. 최강을 자랑하던 군대는 약자로 되였다.

병사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맹과니가 되였다. 비사상화, 비정치화를 떠들며 군인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줴버린 후과였다.

총대에 사상이 없으면 그것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군대는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는것을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도 막아내지 못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과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을 놓치고 사상사업을 줴버리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적인 모든것이 변질되고 파괴되며 사회주의사상진지가 무너지면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사상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반증하여주고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사상의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쏘련군이 현대적무기로 장비되고 력량상 우세한 파쑈도이췰란드군을 타승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은 정치사업을 중시하고 군인대중의 애국주의와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킨데 있다.

사상을 틀어쥐고 정신력을 발동시킨다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사상의 힘으로 승리만을 안아온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주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싸워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은 그 뚜렷한 실증이다.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과 자기 수령, 자기 제도의 고마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웨치며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지켜냈다.

1211고지방위자들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달려드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단 4문의 포로 수많은 함선들과 비행기, 5만여명의 대병력과 맞서싸웠고 용감한 해병들은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세계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후방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기와 탄약, 식량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었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사상의 힘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안아온 자랑찬 승리였다. 이것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 사상에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준 세계적인 산모범이다.

우리 당은 그후에도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천만심장을 격동시키는 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려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워질 때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였다.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간데 있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사상을 틀어쥐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사상사업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상사업이 없이는 사회주의가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사상사업강화에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려는 정신이 나올수 없다. 사회주의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제국주의사상문화의 포로가 된다.

사회주의를 지키자면 첫째도 둘째도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나라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밑에 얽어매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그 주되는 화살은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에 집중되고있다.

최근에만도 적대세력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반공화국방송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선전하는 출판물들을 우리 내부에 침투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색정적인 화보, 사진, 잡지 등의 종이출판물을 통한 선전이 기본이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현대적인 전자설비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콤퓨터와 기억기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들에 부르죠아사상문화를 기입하여 들이밀고있다. 노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사람들을 불건전한 사상문화에 물젖게 하고 정신, 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게 만들어 종당에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손쉽게 허물어버리자는데 있다.

하지만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인 우리 군대와 사회주의의 기초인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이 없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령도방식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보루라고 하시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전 영 희

여러 나라 신문 특집

사회주의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 8일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옹근 한면에 걸쳐 특집하였다.

신문은 《2014년 2월 16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라는 표제밑에 《사회주의위업에 쌓으신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사회주의위업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신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았다.

신문은 지난 세기 말엽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준엄한것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는 불후의 저서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완전종말》을 떠들어대던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안기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여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다지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단호히 분쇄해나가시는 한편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사회주의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쿠웨이트신문 《더 타임스》 9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옹근 한면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조선인민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성국가건설은 **김정일**각하의 한생의 념원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한평생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조선인민은 지금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은**각하를 령도자로 모시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정일**각하께서 온 생애를 바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방글라데슈신문 《인다스트리》 9일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로선은 당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총진군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이의 사상리론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남조선 각계각층 군중 20만명 전지역에서 투쟁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5일 서울과 대전, 울산, 부산,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에서 각계각층 군중 20만명의 참가하에 대규모반《정부》투쟁이 전개되였다.

서울시청앞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4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취하자.》고 웨쳤다.

그들은 현 《정부》의 집권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화말살로 이어진 나날이였다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녀성 등 각계각층이 더이상 그대로 참고있을수 없어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 발언한 보건의료로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민을 속이며 강행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터로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대규모실업과 의료비폭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철도로조 위원장직무대행은 《정부》가 철도민영화에 계속 매달리고있다고 하면서 투쟁으로 로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국이 불법선거에 개입한자들에게는 무죄를,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란음모사건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장애인차별철폐련대 상임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성토하면서 《장애인들의 삶을 지켜달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달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민주화말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어떤 탄압속에서도 각계가 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권자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렸다.

시청앞광장에 다시 모인 투쟁참가자들은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재생에네르기개발전망

중국에서 2050년에 가서 전력생산의 80%를 재생에네르기에 의거할것을 전망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화석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으로 산생되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이 90%나 감소될것이라고 한다.

산림자원보호조치

라오스정부가 나라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밀수행위에 대한 단속통제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지난 시기 산림을 람벌하여 목재를 수출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킨데 이어 위법현상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왔다.

결과 지난해에만도 밀수업자들로부터 67만 1 000㎥의 목재와 450만㎥의 통나무를 적발압수하였다고 한다.

수출 증가

방글라데슈에서 지난해 7월에 시작된 2013-2014회계년도의 첫 7개월동안에 수출액이 지난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5.08% 증가하였다.

16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대중체육발전노력

칠레에서 대중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장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19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최근 이 나라에서 7개의 새 경기장이 완공되였으며 6개의 경기장이 건설중에 있다.

나라에서는 지난 4년동안에 190개의 작은 경기장들과 체육쎈터들이 건설되였다고 한다.

캄보쟈에서 지은 옷생산

로씨야에서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로씨야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념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이 23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성벽곁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식에는 련방평의회 의장 왈렌찌나 마뜨비옌꼬와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를 비롯한 정부성원들, 전쟁로병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수도와 싼크뜨-뻬쩨르부르그, 울라지보스또크 등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전시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으며 저녁에는 축포가 올랐다. 이에 앞서 20일 크레믈리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한 경축음악회가 대통령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비핵3원칙》을 견지할것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끌어들이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외상의 최근 발언과 관련하여 《비핵3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일본이 전후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언론의 거짓보도행위를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최근 거짓보도를 일삼고있는 미국언론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있는 미국의 CNN방송기자들이 거짓보도를 일삼으면서 전쟁을 선동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자기 나라 정부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서방의 이중기준정책을 비난

벨라루씨의무성이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서방의 이중기준정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서방나라들이 우크라이나정세와 관련하여 그 무슨 《평화적성격》에 대해 제창하면서도 반대파시위자들이 비법적으로 정부기관청사들을 점거하고 무기를 마구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성명은 서방이 정부측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일산화탄소방출량이 훨씬 적은 휘발유 개발

최근 중국의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의 연구와 시험을 거쳐 메틸알콜을 에틸에테르물질인 디메톡시메탄으로 산화시킨 다음 이 액체상태의 물질을 휘발유와 섞어 디메톡시메탄휘발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새로 개발된 휘발유는 알콜휘발유보다도 점화속도가 빠르고 연소효률이 높다는것이 증명되였다. 표준휘발유에 비해 새 휘발유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방출량을 약 70% 줄일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잡지

집권자의 실패한 한해를 야유

미국잡지 《뉴스위크》 최근호가 《엎친데 덮친 격인 2013년, 오바마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잡지는 지난해 12월 20일 미국집권자의 년말기자회견도중 갑자기 《취임이래 최악의 한해가 아니였는가?》라는 질문이 튀여나온데 대해 언급하고 이런 질문이 나온것도 무리는 아니다, 2013년은 오바마에게 있어서 엎친데 덮친 격인 한해였다고 전하였다.

잡지는 미국에서 집권자의 지지률이 전례없이 《저공비행》한 사실, 미국가안전보장국이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도청을 감행한 죄행이 드러나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가 훼손된 사실, 여야당이 예산합의를 보지 못해 16일동안 련방정부기관들이 폐쇄된 사실,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현 집권자의 취임이후 해마다 악화되여 대공황이래 최악의 수준에 이른 사실 등 지난 한해동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실들을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잡지는 《애완용개까지 말썽?》이라는 소제목에서 지난해 12월초 대통령일가의 애완용개가 2살 난 녀자애를 자빠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엉겁결에 엉덩방아를 찧은 녀자애의 정상이 마치도 하는짓들이 죄다 반대결과를 낳은 2013년의 오바마를 상징하는듯 하였다고 비양하였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산림황폐화현상

세계적으로 산림황폐화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약 230만㎢의 산림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한다.

화산 분출

인도네시아의 쟈바섬에서 껠루드화산의 분출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분화구로부터 화산재가 1만 7 000m의 높이까지 솟구쳐올랐으며 그로 하여 18일현재 사망자수는 7명, 부상자수는 1 420여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보건 및 교육시설들을 비롯하여 3 782개의 공공시설들이 파손되고 약 7 000ha의 농경지가 파괴되였다.

폭설피해

일본의 도꾜를 비롯한 9개의 도와 현들에서 최근 폭설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있다.

20일현재 사망자수가 22명으로 늘어나고 수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의연 중단상태에 있다. 또한 도로들이 막히고 렬차와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여 려객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류독감환자 계속 발생

중국에서 조류독감환자가 계속 발생하고있다.

15일 광동성보건당국은 성에서 2명이 H7N9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통보하였다.

20일 광동성보건당국은 성에서 또 1명이 H7N9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통보하였다. 홍콩에서도 그와 같은 류형의 조류독감환자가 또 발생하였다. 한편 안휘성에서도 1명의 조류독감환자가 새로 발생하였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무엇을 노린 기후변화타령인가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가 아시아나라들을 행각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활동을 추동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라느니, 국제적인 문제로 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 가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변화가 초래되고있는데 대하여 97%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있다.》고 력점까지 찍어가며 기후변화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량살륙무기가 될수 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그리고는 일부 기업이나 몇몇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보고있는데 기후변화부정론자들이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도 기후변화가 초래된것이 저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일부 나라들이나 기업들에만 있는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런것을 놓고 재묻은 개가 겨묻은 개 흉을 본다고 말한다.

케리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사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데는 미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대량적인 온실가스방출로 지구온난화가 촉진되고 그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되는 요인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의 대량적인 온실가스방출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있으며 그것은 이미 위험단계를 넘어서고있다.

얼마전 유엔기후변화협약정부간위원회에서 발표된 평가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 경고하면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집행서기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평균농도가 400ppm을 넘어선것이 인류의 안전보장과 복지, 경제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방출량이 제일 많은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나라들이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나 같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귀등으로 흘려보내고 저들의 리익만을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놀아대고있다.

교또의정서리행과정만 놓고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교또의정서는 1997년 일본의 교또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이 의정서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량의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발전된 나라들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방출량을 1990년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5.2%낮추어야 한다는것이 규정되여있다. 세계적인 온실가스방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7%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미국은 교또의정서리행을 회피하고 방출량을 늘이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저들의 삭감몫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걸고 늘어졌는가 하면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릇된 과학에 기초하고있다.》고 왼새끼를 꼬았다. 지어 《환경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망발을 마구 늘어놓으며 교또의정서를 아예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늘어났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지구생태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였다.

기후변화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바로 이렇다. 이런 미국이 기후변화가 어떻소, 환경보호가 어떻소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것은 낯뜨거운줄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행동이 아닐수가 없다.

미국은 제나름대로의 타산을 가지고 행동하고있다. 그것인즉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요란스레 광고하여 막대한 온실가스를 방출시키고있는 저들의 행위를 가리우고 미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달라지게 만들자는것이다.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케리가 한 발언의 내용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번에 그는 《지금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여서 몇몇 집단이 기후변화론의를 장악하게 놔둘 시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것은 미국이 기후변화문제를 론하는데서 주도적권한을 행사하겠다는것이며 저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것을 시사한것이나 같다.

미국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기후변화문제도 저들의 세계지배야망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암시하는 몇몇 기업이나 나라라는것이 어떤 대상들이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그 대상에 넣고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속심은 어디 갈데 없다. 미국은 오만방자하게도 세계를 눈아래로 보며 제 마음대로 놀아대려 하고있다. 얼마전 오바마가 《미국이 기후변화와의 투쟁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고 휜소리를 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기후변화문제까지도 저들의 세계지배수단으로 리용해먹으려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환경의 파괴자이다.

기후변화문제는 미국의 불순한 목적실현의 롱락물이 아니다. 세계는 미국의 비렬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침을 뱉고있다. 이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미국은 기후변화문제에서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제 할바나 성실히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혁

ㄱ-4103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